“케이블카 환상, 애물단지로 돌아온다”

통도사 영축환경위,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철회’ 촉구

11월 20일 통도사서 기자회견
케이블카 개발 644억 원 규모
“통도사 2014년부터 반대입장”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영남 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을 즉각 철회하라!”

영축총림 통도사 영축환경위원회(위원장 현범, 이하 영축환경위)가 11월 20일 통도사 경내 일주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영남알프스(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철회’를 촉구했다. 영축환경위는 영남 알프스 케이블카 설치가 “길이 보존해야 할 공공재를 특정 기업 이익을 위한 전유물로 허가하는 것”이라며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하는 특혜인 이번 사업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영축환경위 위원장 현범 스님은 “신불산 일대는 식생보전등급 기준 1등급 지역이나 3등급으로 낮춘 것은 매우 의문이 드는 부분”이라며 “보호를 위해서라도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마땅히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성토했다. 이어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 예상 지역은 지질학적으로 낙석 등 지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지역”이라며 “현재도 낙석이 떨어지는 곳이어서 산사태 위험이 있고 태풍이 지나는 길목이기 때문에 안전상으로도 매우 취약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 내용에 대해 함세영 부산대 명예교수도 “신불산은 동쪽과 서쪽이 단층으로 형성돼 있으며 케이블카 설치로 암반에 풍화와 침식을 일으켜 한 번 훼손되면 복구는 어려울 것”이라 말했다.

영축환경위는 이에 더해 “통도사는 2014년부터 케이블카 건설을 반대해왔다”며 “2018년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 부동의 결정을 하도록 힘을 보탰음에도 이번에 영축산과 가장 가까운 노선으로 다시 추진하는 것은 영축총림 통도사에 대한 도발이나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울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천도 스님도 “관광 인프라를 형성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는 사탕발림으로 경쟁하듯 만들어놓은 수많은 산악케이블카를 보라”며 “거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애물단지로 남아있다. 울주군과 케이블카 사업단은 좀 다른 시선으로 지속가능한 길을 찾아주시길 바라고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무지한 욕심을 철회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축총림 통도사 영축환경위원회가 11월 20일 통도사 일주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남알프스(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철회’를 촉구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추진하고 있는 ‘신불산 군립공원 조성사업(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644억 원 전액 민자사업이다.

울주군은 이순걸 군수 취임 후 산악관광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2025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계획 구간은 복합웰컴센터에서 신불산 억새평원까지 2472㎞에 이른다.

울주군 서부 6개 읍·면 발전협의회는 이날 오후 울주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남알프스 케이블카를 조속히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통도사 기자회견 현장에는 영축환경위원장 현범 스님을 비롯해 총무국장 청우 스님, 교무국장 보원 스님, 포교국장 신경 스님, 울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천도 스님, 함세영 부산대 지질학과 명예교수, 구자상 前부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상범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등 영축환경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보현장학회, 청소년·다문화가정 지원

장학금 2010만원·아동영양키트 전달

재단법인 보현장학회(이사장 정여)가 11월 18일 범어사 보제루에서 장학금 수여 및 다문화가정 아동영양키트 전달식을 봉행했다.<사진> 장학금은 대학생 및 대학원생 16명에게 각 100만원, 고등학생 7명에게 각 50만원, 중학생 2명에게 각 20만원, 총 25명에게 2010만원을 전달했다. 다문화가정 아동영양키트는 부산광역시불교복지협의회 회원기관인 금정구가족지원센터, 개금종합사회복지관, 화명종합사회복지관, 금정청소년수련관, 동삼종합사회복지관, 용당어린이집 등에서 추천받은 101명의 아동에게 전달됐다.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정여 대종사는 “보현장학회는 은사스님께서 설립하셨다. 받는 사람보다 나눠주는 보현장학회 이사스님들과 불자들이 더 행복해질 거라 생각한다”며 “아울러 오늘 뜻깊은 자리에 다문화가족이 참석했다. 따뜻한 겨울 보내시고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길 바란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부산생명나눔 ‘100원 희망 콘서트’ 개최

11월 21일, 저금통 모으기·봉사자 표창도

100원의 온정을 모아 환우에게 희망을 전하는 콘서트가 진행됐다.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심산, 이하 부산생명나눔)가 11월 21일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제18회 100원 희망불씨 콘서트’를 개최했다.<사진> 부산생명나눔은 이번 콘서트에서 1년 전에 배포한 난치병 환우 돕기 저금통을 모으고, 지원받는 환자를 소개하며 생명나눔의 가치를 전했다. 행사에는 부산생명나눔 본부장 심산 스님과 부본부장 자인 스님, 해암 스님, 이사 성문 스님을 비롯해 500여 명이 참석했다.



심산 스님은 “진정한 무주상 보시를 실천하는 생명나눔 장기기증회원과 후원회원, 이사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공연에 앞서 부산생명나눔은 한 해 동안 생명가치에 동참하고 함께 노력한 봉사자를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표창장은 광명사 오정숙 불자를 비롯해 9명이 수상했다. 또 함께 웃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단법인 미소원이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정각원 창립 1주년…“세상 밝히자”

제12회 김장·장학금 전달
1000여 명 국수 만발공양도

사단법인 부산정각원(이사장 향공)이 창립 1주년을 맞아 지역민을 위한 나눔 한마당을 개최했다.

부산정각원은 11월 22일 사상구 르네시떼 야외공연장에서 창립 1주년을 기념하며 ‘제12회 연말 사랑의 김장김치·장학금·국수 무료급식’을 개최했다. 부산정각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나눔의 공덕을 널리 회향하고 장학금을 비롯해 소외 이웃을 위한 도시락 나눔, 무료급식을 이어가는 자비나눔 공동체로 성장할 것을 다짐했다.



부산정각원은 11월 22일 사상구 르네시떼 야외공연장에서 창립 1주년을 기념하며 ‘제12회 연말 사랑의 김장김치·장학금·국수 무료급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주지 향공 스님을 비롯해 사상구 옥천사 회주 청강 스님, 화엄승가회장 자인 스님, 화엄승가회 이사 대각 스님과 조병길 사상구청장, 윤태한 부산시의회 의원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동참했다. 행사는 개회, 내빈소개, 시상식, 격려사, 축사, 장학금 및 김장김치 전달식으로 이어졌으며 축하공연과 국수 무료 급식이 진행됐다.

부산정각원은 이날 김장김치 10kg과 컵라면 각각 323박스를 전달했으며 학생 11명에게 각 20만원, 총 220만원을 지원했다. 김치는 사상구 관내 12개동 행정복지센터와 새마을부녀회를 통해 각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부산정각원에서 봉사를 이어온 회원들을 격려하는 시상식도 열렸다. 표창장은 김정자·황지경·김정순·김수남 불자가 수상했으며, 감사장은 전수덕·채승원 불자가 받았다.

이사장 향공 스님은 “참여해주신 모든 불자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말과 함께 “사단법인 부산정각원을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 봉사자들은 어두운 곳곳을 밝히듯 나눔의 활동을 펼쳐왔다. 나눔에 앞장서 주신 봉사자들의 손길이 사단법인 부산정각원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앞으로도 나눔의 공동체로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단법인 부산정각원은 견강암 산하 봉사단체다. 30여 년 전 견강암 주지 향공 스님이 부산 국제시장 난민촌에서 굶고 배고픈 소외 이웃을 위한 국수 만발공양을 시작한 것이 시초가 됐다.

이후 부산 사상구로 도량을 이전해 봉사를 이어왔으며 봉사나눔 단체인 정각원을 창립했다. 2022년 11월 1일 정각원은 사단법인으로 등록하고 새롭게 출발했다.

현재 100여 명의 후원회원이 있으며 매월 2·4주 무료급식과 어르신 효나눔 잔치, 동지팥죽, 김장김치 등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연제구불교聯, 백미 3000kg 나눔

12개동 주민센터 거쳐 소외이웃에 회향키로

부산연제구불교연합회(회장 법승)가 11월 22일 정수사에서 자비의 쌀 전달식을 개최했다.<사진>

자비의 쌀은 총 3000kg이며, 쌀은 연제구 내 12개동 주민센터를 통해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 이웃에게 회향될 예정이다. 전달식에는 연제구불교연합회 고문 원광 스님, 고문 보당 스님, 회장 법승 스님을 비롯한 회원 스님들과 주석수 연제구청장 등 관계자가 동참했다.



회장 법승 스님은 “추운 겨울이 오기 전 힘들고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부처님의 자비를 나누고 전달하고 싶은 회원들의 마음이 모였다”며 “고문이신 원광 스님의 원력으로 많은 백미를 모을 수 있었다. 자비나눔에 함께 동참해 준 모든 회원 스님들께도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마음여행 해외성지순례

달라이라마 인도
보드가야법회 10일
달라이라마 법문 및 성지순례(12월26일~1월4일 도착)
동참금 | 280만원
일 정 | 인천–델리–바라나시(사르나트)–보드가야 법회(보드가야대탑–계족산–전정각산–가야산)–라즈기르(영축산–나란다대학–칠엽굴–제석굴) –파트나–델리–인천
특별한 일정
1. 달라이라마 보드가야 법회 3일간
2. 부처님 성불하신 보드가야 대탑 기도
3. 가섭존자가 부처님의 금란가사를 지니고 들어가서 미륵부처님을 기다린다는 계족산 등정
4. 부처님이 오르셨던 전정각산과 가야산 등정
5. 법화경 설법지 영축산과 나란다대학
6. 제석천이 찾아와서 설법을 요청한 제석굴 순례

인도 네팔
8대 성지순례 11일
1월20일 출발~1월30일 도착(11일 일정)
동참금 | 280만원
일 정 |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축산–나란다대학–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상카시아–아그라–델리–인천

일본 교토 벚꽃여행 4일
벚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교토의 명사찰 순례
3월 25일 출발~3월 28일 도착(4일 일정)
동참금 | 문의
일 정 | 인천–오사카–법륭사–선림사–남선사–청수사–은각사–동복사–아라시야마 천룡사–광륭사–동사–삼십삼간당 등 모두가 벚꽃이 만발한 사찰의 아름다움을 느낄수 있는 최고의 여행이 될 것입니다.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 10일
1차 2024년 4월12일~4월21일(9박10일)
2차 2024년 5월17일~5월26일(9박10일)
동참금 | 문의
일 정 | 인천–서안(진시황 병마용갱,화청지)·법문사(부처님 불지사리)·천수(맥적산석굴)–난주(병령사석굴)–장액(대불사)–칠채산(일곱빛깔 무지개산)–가욕관(만리장성의 서쪽 최전방 성루)·돈황(막고굴,명사산)–유원–투루판(베제크릭천불동,화염산,고창고성,교하고성)–우루무치(천산천지)–

중국 운강석굴, 오대산 성지순례 5일
5월16일 출발~5월 20일 도착
동참금 | 문의
일 정 | ▶1일 : 대한항공편으로 인천–북경–대동
▶2일 : 운강석굴–응현목탑–현공사–오대산
▶3일 : 오대산 5대봉–동대 망해봉–북대 협두봉–중대–취암봉–서대–계월봉–남대–금수봉 5대 전체 순례
▶4일 : 오대산–보살정–현통사–탑원사–수상사–북경
▶5일 : 북경–인천(대한항공)

티베트 카일라스(수미산) 순례 16일
2024년 6월07일~6월22일
동참금 | 문의
일 정 | 인천–성도–라싸–갼체–시가체–사캬–라체–사가–파양–다르첸–수미산코라–구게왕국–마나사로바호수–사가–라싸–인천
※순례 신청하신 분에게는 우주의 중심 카일라스 책을 드립니다.

예약·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